

이종혁, 드라마 '트레드스톤'으로 미국 진출

배우 이종혁(사진)이 할리우드 영화 '본' 시리즈의 스펀오프 드라마 '트레드스톤'으로 미국에 진출한다.



18일 소속사 다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종혁은 최근 미국 TV 시리즈 '트레드스톤'에 출연을 확정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에서 진행된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마쳤다. 할리우드는 물론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는 작품인 '트레드스톤'에서 이종혁은 주요 역할로 등장해 강한 카리스마로 극의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전해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종혁의 할리우드 진출작인 '트레드스톤'은 최고의 스파이인 제이슨 본을 만들어낸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비밀 조직 기관 트레드스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다.

이 작품은 '히어로즈' 시리즈를 창조한 팀 크링과

'본' 시리즈의 벤 스미스가 제작을,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라민 바흐러니 감독과 '왕좌의 게임' '하우스 오브 카드' 등의 대표작을 자랑하는 알렉스 그레이브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드라마 '맘마미아!2'의 제레미 어버인, 드라마 '센스8'의 브라이언 J. 스미스 등이 캐스팅됐으며, 한국 배우 한효주도 출연한다.

1997년 연극 '서푼짜리 오페라'로 데뷔한 이종혁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바람 피기 좋은 날' '미쓰 홍당무' 드라마 '추노' '신사의 품격' '봄이 오나 봄' 등 그동안 수많은 작품을 선보이며 장르와 캐릭터에 국한되지 않은 연기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트레드스톤'은 오는 10월 NBC유니버설 USA네트웍 채널을 통해 방영 예정이다.

유승준 "군대 간다고 한 적 없어"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군대에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17일 방송된 SBS TV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17년 전 군대에 가지 않은 결정에 대해 "내가 군대에 가겠다고 내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유승준의 심경을 듣고자 로스앤젤레스에 다녀갔다.

유승준은 얼떨결에 한 발언이 자원 입대로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방송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아는 기자와 만났는데 '승준아, 너 이제 나이도 차는데 군대 가야지' 해서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자 기자가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체격도 좋으니 좋겠다'고 해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고 답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 날 스포츠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 입대하겠다'는 기사가 났

다."고 덧붙였다. 별 생각 없이 대꾸한 게 '자원입대'로 탈바꿈됐고 결국 그로 인해 '한국 대중가요계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는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자로 재외국민이었던 유승준은 2001년 8월 31일 4급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당시 특급 댄스 가수인 유승준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자 국방부는 유승준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입영이 다가오자 일본과 미국 일정이 있다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병무청에 제출한 뒤 출국했다. 그 뒤 유승준은 2002년 1월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유승준 입국 가부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최근에는 유승준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재돼 무려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제니퍼 로렌스, 품절녀 대열 합류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로렌스(28)가 아트 디렉터 쿡 마로니(33)와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며 품절녀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16일 미국 매체 페이지식스는 제니퍼 로렌스와 연인 쿡 마로니가 이날 뉴욕주 맨해튼시에 위치한 혼인 신고 담당 사무국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경호원과 포토그래퍼, 친구들과 함께 사무국에 방문했다. 무엇보다 제니퍼 로렌스의 손에는 혼인 신고서로 보이는 서류들이 있어 혼인 신고를 위해 해당 사무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친구의 소개로 인연을 맺은 제니퍼 로렌스와 쿡 마로니는 지난해 6월부터 연인으로 발전해 공개 데이트를 즐겼다. 올2월 약혼을 발표하고 5월 약혼식을 가졌다. 이들은 오는 10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제니퍼 로렌스는 인터뷰를 통해 "쿡 마로니는 내 인생에서 만난 남자 중 최고이다."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사람"이라며 애정을 드러내왔다.

제니퍼 로렌스는 지난 2006년 TV영화 '컴퍼니 타운(Company Town)'을 통해 데뷔했다. 이후 '욕망의 대지', '포커 하우스', '원터스본', '비버', '아메리칸 허슬' 등 작품에서 활약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헝거 게임' 시리즈, '엑스맨' 시리즈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배우로 성장했다. 2012년에는 영화 '실버 라이닝 플레이백'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1282호 숫자퍼즐 정답

3	6	4	2	7	9	5	8	1
1	5	7	3	6	8	2	4	9
8	9	2	4	1	5	3	6	7
2	1	6	7	5	4	9	3	8
4	8	3	9	2	6	1	7	5
5	7	9	8	3	1	4	2	6
7	4	5	1	8	2	6	9	3
6	2	8	5	9	3	7	1	4
9	3	1	6	4	7	8	5	2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기존 이론과 다른 청해(淸海) 사주명리학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예전에 어느 40대의 여성과 상담을 하면서 필자에게 먼저 묻는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곳의 철학원을 많이 다녀보았는데 모두 실망스러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혹시 필자는 정확하게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냐고 묻는다. 그 말을 듣고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내가 상담을 의뢰하신분의 타고난 팔자(八字)나 운(運)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줄 수는 없지만 타고난 팔자의 특징들과 앞으로 다가올 운(運)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지 설명해줄 수는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 여인의 팔자를 보면서 건넨 이야기는 "타고난 사주팔자가 평생 직업이 글과 학문을 바탕으로

전문직에서 성공할 사주가 되는데 아쉽게도 배우자 인연은 굴곡이 따르는 팔자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이혼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그 여인이 타고난 팔자의 특징들과 앞으로 다가오는 운(運)의 흐름에 따라 처세할 바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상담을 모두 마치고 나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다른 곳보다 원장님이 풀이하시는 것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감탄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말은 "기존의 사주명리(四柱命理) 이론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오행론(五行論)이나 용신(用神)이나 격국(格局)을 따지는 이론하고 제가 구사하는 사주이론은

사주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이론이 사주(四柱) 간지(干支) 글자에 드러난 갑(甲), 을(乙), 인(寅), 묘(卯)를 오행적으로 단순히 목(木)으로만 보고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사주를 해석하는데 반해서 필자가 사주를 해석하는 관점은 입체적으로 갑(甲), 을(乙), 인(寅), 묘(卯)가 각각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고 사주를 해석하므로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만나게 되는 역학자도 모두 인연따라 만나게 되는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